

학교교육의 촌지문제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김 달 효*
(동아대학교)

A Study on of the recognition on the problem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Dal-Hyo KIM†
Dong-A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lthough the problem about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is restricted by small number of teachers, it must be solved for normal and good schoo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oblem about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an extent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seriousness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the experience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an amount of money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the time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a compensation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using a questionnaire to 549 parents. And a Chi-square test was used as a research tool for this study.

This study indicates that many parents recognize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as money or gift certificate. And most parents recognize different significantly about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according to teachers' sex, ages, level of school, and type of school.

We do not need a vast and experimental revolution in education based on unproved reasoning. If we want to be normal and good schooling, we have to make an effort small changes which solve a problem of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Our educational policies have to move from vast approaches generated from 'above' with political purpose to more particular approaches based on specific problems and generated by the community.

Key words : A token of parents' gratitude, Teacher problem, Schooling

I. 서론

학교는 사회의 외판 섬이 아니고, 학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다. 즉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보면, 학교에서 어떤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는 학생들로 육성하여 사회에 진출시키느냐에 따라 사회발전

이 좌우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유익한 지성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학교가 공정하고 평등하며 바람직한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

† Corresponding author : 051-200-7078, ekfgyrla@hanmail.net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되기를 모두가 바란다.

학교교육의 주체는 크게 학생, 교사, 학부모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람직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세 집단들 간에 상호 신뢰, 협동, 배려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관계의 구조도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는 학교에서 거의 생활을 하지 않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 간의 관계도 상호 신뢰, 협동, 배려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서 은연중에 방해하는 것이 바로 촛지문제이다.

비록 예전에 비해 교사의 촛지문제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교사의 문제일지라도 아직도 그러한 촛지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인순(1998)은 질적연구를 통해 초등학교의 촛지문제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부패방지위원회가 2004년 5월 6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촛지를 수수한 128명의 교원(128건)을 대상으로 촛지 실태를 분석하여 2005년 5월 3일 발표한 자료에서도 교원의 촛지 수수 실태가 확인되었으며, 최근 2008년 5월 12일자 세계신문에 의하면, '여전히 고가선물에 상품권 공세...되살아나는 '스승의 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교육현장에서 스승의 날을 전후한 촛지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택배나 배달 서비스로 상품권이나 고가 선물을 보내는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했음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은 비록 대다수의 교사와 관련된 촛지문제가 아니고 소수의 교사와 관련된 촛지문제일지라도,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쉽게 간과하고 지나치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학교교육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촛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촛지문제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학교교육

의 촛지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여인순(1998)의 연구가 전부라 할 정도로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인순(1998)의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에 한정해서 면담을 통해 촛지경험을 나타냄으로써, 촛지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촛지문제에 관해 직·간접적인 이해를 도와준다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통계적인 의미를 갖거나 촛지문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첫째, 촛지의 개념적 범위, 둘째, 촛지문제의 심각성, 셋째, 촛지전달의 경험 유무 및 그 이유, 넷째, 연간 촛지로 지출된 총 금액, 다섯째, 촛지의 전달 시기, 여섯째, 촛지의 대가, 일곱째, 촛지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촛지문제를 실증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촛지의 개념

국어사전에는 촛지(寸志)란 '속으로 품은 작은 뜻' 또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로 기술되고 있다. 즉 사전적 용어로서의 촛지란 '속으로부터 우러나온 자그마한 마음을 나타낸 작은 뜻 또는 선물'이라는 뜻으로서 자신의 선물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고, 고마움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이다. 그러나 현재는 촛지가 그러한 미덕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촛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 없이 대가성 또는 피해의식에서 은밀하게 전달하는 돈이나 상품권 또는 금품'의 뜻으로 사용된다(김달효, 2006).

촛지에 대한 이러한 현실적인 정의는 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8)가 촛지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

는 운동회, 소풍, 학예회 등에 목욕값으로 통하는 '행사촌지'와 '회식촌지', 학급임원이나 전교임원 당선 시 촌지를 유도하는 '당선촌지', 각종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한턱을 내는 '수상촌지', 교사에게 촌지를 주지 않은 학생을 차별대우하거나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을 빙자하여 촌지를 유도하는 '상답촌지', 성적 상위그룹의 고3 학부모들이 계모임 형식으로 담임에게 주는 '집단촌지', 그리고 예·체능 과목의 실기시험 성적을 위한 '내신촌지' 등으로 촌지유형을 분류하였다.

무엇을 촌지로 규정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감사의 마음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대가성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나 금품을 촌지로 볼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촌지를 건넨 학부모의 진술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기준도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풍토에서는 그것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교사들에게 촌지를 전달하는 학부모들 중에서 촌지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단, 더 이상 그 학생을 교사가 맡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전달하는 선물은 진정한 감사의 뜻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촌지에 대한 위의 정의에서 시간적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촌지란 '학부모가 현재 자기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에게 진정한 감사의 마음 없이 대가성 또는 피해의식에서 은밀하게 전달하는 돈이나 상품권 또는 기타 금품'이 된다.

2. 법적 차원의 촌지 해석과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는 '청렴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제①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제②항에는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개의 항에 대한 내용 중,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촌지문제와 관련하여 본다면 제①항의 내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국·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이자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의 권한과 보수등을 국·공립학교 교사들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공·사립학교의 교원들은 그 직무와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간에 학부모들로부터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으면 안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에는 '채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제①항에는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행위,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국·공·사립학교의 교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수수 행위¹⁾를 하는 것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국·공·사립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사례·증여·향응을 받거나 각종 금품수수 행위를 하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 행위를 '촌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1) '금품'에 대한 정의를 국어사전에서는 '돈과 물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촌지를 받은 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몇 가지 판례가 있다. 즉, 한 판례(대구지방법원 1999.11.10. 99고합504)에 의하면, 대구 Q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구박하고 간접적으로 학부모에게 촌지를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교사의 처신은 비록 그 수수금액이 적고 그동안 교사로서 사회에 봉사하였고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1년의 자격정지를 선고하였다. 이로 인해 이 교사는 당면퇴직 되었다. 왜냐하면, 이 교사는 위의 국가공무원 결격사유 8가지 중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판례(1997.4.25. 96누17479)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문제로 상담요청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술 등의 향응을 제공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함께 금200,000원의 현금을 받고, 술에 취한 학부모와 새벽 3시경까지 공원에 함께 있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와 같은 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비위 사실을 들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3. 선행연구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촌지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교사의 촌지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여인순(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교사가 촌지를 경험할 때 크게 세 가지 반응(①촌지를 수용하는 교사, ②망설이는 교사, ③거부하는 교사)으로 구분하였고, 학부모가 촌지를 경험하게 될 때 크게 네 가지 반응(①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학부모, ②대가성으로 하는 학부모, ③피해의식(안 하면 자기자녀가 불이익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학부모, ④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학부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다양한 면담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가 경험하는 촌지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의 촌지문제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이정훈(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보다 학부모가 유의한 차이로 촌지와 관련하여 높은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손희권(2007)은 학교촌지 수수의 법적 문제로서 학교촌지예방법안에 제시된 실현 수단이 예방보다는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학교촌지의 원인 규명 및 이에 걸맞은 대안 제시가 미흡하며, 학교행정가와 교원의 배우자의 의무에 대하여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학교촌지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주고받는 촌지로 한정함으로써 학교 밖에서 주고받는 촌지에 대한 제재가 이 법안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가 2004년 5월 6일부터 2004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촌지를 수수한 128명의 교원(128건)을 대상으로 촌지 실태를 분석하여 2005년 5월 3일 발표한 교원의 촌지 수수 실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교사 촌지가 수수되는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이며, 장소는 교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촌지 액수는 최저 10만 원이고 최고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에 따르면 촌지 수수시간대는 오후 3시가 7건이고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18건에 이르렀다. 촌지 수수장소는 교실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교내, 교사자택, 연구실, 무용실, 소풍지 등에서 이루어졌다. 셋째, 촌지 종류는 현금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상품권 11건이었다. 상품 중에는 금팔찌, 양주, 외제 화장품, 영양제, 와인 등이 포함되었다. 넷째,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로부터 최고 3,000만 원까지 각출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적발된 128명에 대한 사후 조치로는 징계(9명), 인사조치(3명), 경고(4명), 주의(59명), 반환조치(48

명), 불문(5명)이 내려졌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의 촌지문제에 관한 직·간접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데 명백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통계적인 방법과 접근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학교교육의 촌지문제에 관해 종합적이고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공통적으로 갖는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주제의 사회적 민감성 특성과 쟁점의 가능성 때문에 초·중등 학교현장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 및 학교 당국에 원활한 도움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학부모의 표집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섯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 둔 학부모들 중에서 2007년 당시 다른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부모 5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집의 특성

구분	학부모의 특성	명(%)	계
성별	남교사를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	147(26.8)	2190
	여교사를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	402(73.2)	
연령별	담임이 20대였던 학부모	30(5.5)	
	담임이 30대였던 학부모	69(12.7)	
	담임이 40대였던 학부모	306(56.4)	
	담임이 50대 이상이었던 학부모	138(25.4)	
학교단계별	자녀가 초등학생이었던 학부모	387(70.5)	
	자녀가 중학생이었던 학부모	87(15.8)	
	자녀가 고등학생이었던 학부모	75(13.7)	
학교설립별	자녀가 국공립학교에 다녔던 학부모	465(84.7)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녔던 학부모	84(15.3)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세부 질문사항들을 연구자가 정리한 후, 학부모 3명과 교사 2명에게 자문과 조언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설문지 문항들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응답에 대한 정보는 절대 비밀로 지켜짐을 약속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지난 해(2007년)의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자녀가 다녔던 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에 응답해달라는 당부를 주지시켰다. 그리고 학부모에 따라서는 지난 해(2007년)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설문지를 배부할 때 지난해에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자녀수만큼 설문지를 제공하였고, 각각의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당부하였다. 질문지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질문지의 내용 구성

문항 유형	문항 수
촌지의 개념 범위	1
촌지의 심각성	1
촌지전달 경험의 유무와 그 이유	2
촌지의 금액	1
촌지의 전달 시기	1
촌지의 대가	1
촌지문제의 해결 방안	1
계	8

3. 자료처리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단 순빈도분석과 카이스퀘어 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고, 모든 자료처리는 SPSSWIN 14.0

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촌지의 개념적 범위에 대한 인식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촌지의 개념적 범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부모들은 초중등 교원들의 학교급별에 따라 촌지의 개념적 범위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촌지의 범위에 대해 가장 높게 인식한 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모두 '현금이나 상품권까지'(각 51.9%, 41.4%, 40.0%)이었고, 그 다음으로 높게 인식한 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현금, 상품권, 물건까지'(각 31.8%, 27.6%)이었으며,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교사에게 주는 모든 것'(24.0%)이었다.

<표 3> 촌지의 개념적 범위에 대한 인식

구분	보기문항(명, %)				계	x ²
	①	②	③	④		
학교 급별	초등 학교	33(85)	21(51.9)	12(31.8)	3(7.8)	34.22***
	중학 교	12(13.8)	35(41.4)	24(27.6)	15(17.2)	
	고등 학교	15(21.0)	30(40.0)	12(16.0)	18(24.0)	

*** p<.001

비고: ① 현금만, ② 현금이나 상품권까지, ③ 현금, 상품권, 물건까지, ④ 교사에게 주는 모든 것

2. 촌지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촌지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부모들은 초중등 교원들의 성별, 연령별, 학교급별, 학교설립별에 따라 촌지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첫째, 성별로 볼 때, 남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촌지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

<표 4> 촌지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구분	보기문항(명, %)					계	x ²	
	①	②	③	④	⑤			
성 별	남	27(18.4)	45(30.6)	45(30.3)	21(14.3)	9(6.1)	147(100)	30.91*
	여	33(82)	72(17.9)	14(35.1)	12(31.3)	30(7.5)	40(100)	**
연 령 별	20대	9(30.0)	15(50.0)	3(10.0)	3(10.0)	0	3(100)	66.01**
	30대	9(13.0)	12(17.4)	33(47.8)	12(17.4)	3(4.3)	6(100)	
	40대	27(88)	63(21.6)	11(36.3)	8(27.5)	21(69)	30(100)	
	50대 이상	15(10.9)	27(19.6)	39(28.3)	45(32.6)	12(8.7)	138(100)	
학 교 급 별	초등 학교	30(78)	60(15.5)	135(34.9)	135(34.9)	27(7.0)	387(100)	86.84**
	중학 교	9(10.3)	39(44.8)	30(34.5)	3(3.4)	6(6.9)	87(100)	
	고등 학교	21(28.0)	18(24.0)	21(28.0)	9(12.0)	6(8.0)	75(100)	
학 교 설 립 별	국공 립	51(11.0)	93(21.0)	150(32.3)	138(29.7)	33(7.1)	465(100)	14.37*
	사립 학교	9(10.7)	24(28.6)	36(42.9)	9(10.7)	6(7.1)	84(100)	

** p<.01, *** p<.001

비고: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인 것 같다. ④ 조금 심각한 편이다. ⑤ 매우 심각하다.

다'(30.6%), '보통인 것 같다'(30.3%)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고, 여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촌지문제가 '보통인 것 같다'(35.1%), '조금 심각한 편인 것 같다'(31.3%) 순으로 높게 인식하였다. 둘째, 연령별로 볼 때, 20대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촌지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50.0%)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30대와 40대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보통인 것 같다'(각 47.8%, 36.3%)를 가장 높게 인식하며, 50대 이상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조금 심각한 편이다'(32.6%)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학교급별로 볼 때,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촌

지문제가 ‘조금 심각한 편이다’(34.9%), ‘보통인 것 같다’(34.9%)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44.8%)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28.0%)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넷째, 학교설립별로 볼 때,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모두 촌지문제가 ‘보통인 것 같다’(각 32.3%, 42.9%)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3. 촌지전달의 경험 유무 및 그 이유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촌지전달의 경험 유무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부모들은 초·중·고 교원들의 성별, 연령별, 학교급별에 따라 촌지전달의 경험 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별로 볼 때, 남교사와 여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촌지를 준 경험이 없다’(각 73.5%, 57.5%)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둘째, 연령별로 볼 때, 20대와 30대 그리고 40대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촌지를 준 경험이 없다’(각 80.0%, 73.9%, 64.7%)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에, 50대 이상의 교사

<표 5> 촌지를 준 경험의 여부

구분	보기문항(명, %)		계	x ²
	①	②		
교사의 성별	남	39(26.5)	108(73.5)	11.67***
	여	171(42.5)	231(57.5)	
교사의 연령별	20대	6(20.0)	24(80.0)	30.69***
	30대	18(26.1)	51(73.9)	
	40대	108(35.3)	198(64.7)	
	50대 이상	72(52.2)	66(47.8)	
학교급별	초등학교	183(47.3)	204(52.7)	52.92***
	중학교	6(6.9)	81(93.1)	
	고등학교	21(28.0)	54(72.0)	
학교설립별	국공립	177(38.1)	288(61.9)	.04
	사립	33(39.3)	51(60.7)	

*** p<.001

비고 ① 준 경험이 있다. ② 준 경험이 없다.

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52.2%)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셋째, 학교급별로 볼 때,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모두가 ‘촌지를 준 경험이 없다’(각 52.7%, 93.1%, 72.0%)에 높은 반응을 보였지만,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6.9%) 및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28.0%)보다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47.30%)가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에 높게 인식하였다. 넷째, 학교설립별로 볼 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초·중·고 교원들에게 촌지를 준 경험 유무의 이유는 <표 6>과 같다.

<표 6> 촌지를 준 경험 유무의 이유

촌지를 준 이유	명(%)	촌지를 주지 않은/못한 이유	명(%)
① 우리아이를 잘 봐달라는 목적으로	75(35.7)	① 촌지를 주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180(63.1)
②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63(30.0)	② 촌지를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	57(16.8)
③ 교사가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36(17.1)	③ 바빴기 때문에	51(15.0)
④ 촌지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 받을까 봐	27(12.9)	④ 촌지를 건넸지만 교사가 받지 않아서	42(12.4)
⑤ 남들이 하니깐	9(4.3)	⑤ 기타	6(1.8)
⑥ 기타	0	⑥ 아이가 촌지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3(0.9)
계	210(100)	계	339(100)

먼저, 촌지를 준 이유로는 ‘우리아이를 잘 봐달라는 목적으로’(35.7%),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에’(3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촌지를 주지 않은/못한 이유로는 ‘촌지를 주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53.1%), ‘촌지를 줄 형편이 되지 않아서’(16.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연간 촌지로 지출된 총 금액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2007년 1년 동안 촌지를 건

넨 금액을 알아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간 촌지로 지출된 총 금액

구분	보기문항(명, %)						계	x ²	
	①	②	③	④	⑤	⑥			
교사의 성별	남	184(2)	6(15.4)	6(15.4)	0	0	9(23.1)	3(100)	22.37***
	여	3(19.6)	4(28.6)	1(10.7)	3(19.6)	9(5.4)	7(16.1)	1(81.0)	
교사의 연령 별	20대	6(100)	0	0	0	0	0	6(100)	56.78***
	30대	6(33.3)	0	3(16.7)	3(16.7)	3(16.7)	3(16.7)	1(81.0)	
	40대	2(19.4)	3(30.6)	3(2.8)	2(19.4)	3(2.8)	2(25.0)	1(81.0)	
	50대 이상	1(3.1)	2(3.4)	1(2.7)	6(8.7)	3(4.3)	6(8.7)	6(100)	
학교 급별	초등 학교	4(23.3)	4(25.0)	2(13.3)	3(16.7)	9(5.0)	3(16.7)	1(81.0)	26.80**
	중학교	0	6(100)	0	0	0	0	6(100)	
	고등 학교	9(42.9)	3(14.3)	0	3(14.3)	0	6(28.6)	2(100)	
학교 설립 별	국공 립	4(24.1)	4(25.9)	1(10.3)	3(17.2)	9(5.2)	3(17.2)	1(74.1)	4.47
	사립 학교	9(27.3)	9(27.3)	6(18.2)	3(9.1)	0	6(18.2)	3(100)	

** p<.01, *** p<.001

비고: ① 10만원 이하, ② 11~20만원, ③ 21~30만원, ④ 31~40만원, ⑤ 41~50만원, ⑥ 50만원 이상

학부모들은 초중등 교원들의 성별, 연령별, 학교급별에 따라 촌지를 건넨 금액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별로 볼 때, 남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10만원 이하'(46.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여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11~20만원'(28.6%)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둘째, 연령별로 볼 때, 20대와 30대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10만원 이하'(각 100%, 33.3%)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에, 40대와 50대 이상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11~20만원'(각 30.6%, 30.4%)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셋째, 학교급별로 볼 때,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11~20만원'(각 25.0%, 100%)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고등학교를 자녀로 둔 학부모는 '10만원 이하'(42.9%)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넷째, 학교설립별로 볼 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촌지의 전달 시기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2007년 1년 동안 촌지를 건넨 시기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학부모들은 초중등 교원들의 성별, 연령별에 따라 촌지를 건넨 시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별로 볼 때, 남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스승의 날'(38.5%)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여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수시로'(46.4%)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둘째, 연령별로 볼 때, 20대와 50대 이상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스승의 날'(각 100%, 52.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30대와 40대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수시로'(각 50%, 47.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학교급별 및 학교설립별로 볼 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연간 촌지를 건넨 시기

구분	보기문항(명, %)						계	x ²	
	①	②	③	④	⑤	⑥			
교사의 성별	남	9(23.1)	1(38.5)	0	0	3(7.7)	1(30.8)	3(100)	14.72*
	여	1(58.9)	5(39)	1(7.1)	3(18)	3(18)	7(44)	1(81.0)	
교사의 연령 별	20대	0	6(100)	0	0	0	0	6(100)	41.99**
	30대	0	6(33)	3(16.7)	0	0	9(50)	1(81.0)	
	40대	1(13.9)	2(22.2)	9(8.3)	3(2.8)	6(5.6)	1(47.2)	1(81.0)	
	50대 이상	9(13.0)	3(32.2)	0	0	0	2(34.8)	6(100)	
학교 급별	초등 학교	2(11.7)	6(33)	1(26.7)	3(17)	6(33)	7(43)	1(80.1)	4.94
	중학 교	0	3(50)	0	0	0	3(50)	6(100)	
	고등 학교	3(14.3)	9(42.9)	0	0	0	9(42.9)	2(100)	
학교 설립 별	국공 립	2(12.1)	5(32.8)	1(26.9)	3(17)	6(34)	7(41)	1(74.1)	5.51
	사립 학교	3(9.1)	1(4.5)	0	0	0	1(4.5)	3(100)	

* p<.05, *** p<.001

비고: ① 학기 초, ② 스승의 날, ③ 추석이나 설, ④ 소풍이나 학교행사 때, ⑤ 학기말 또는 연말, ⑥ 수시로

6. 촌지의 대가에 대한 인식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촌지의 대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학부모들은 초중등 교원들의 연령별, 학교급별, 학교설립별에 따라 촌지의 대가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령별로 볼 때,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 모두가 촌지의 대가로 '자녀가 관심을 받는다'(각 70.0%, 40.9%, 60.0%, 63.0%)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둘째, 학교급별로 볼 때,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모두가 촌지의 대가로 '자녀가 관심을 받는다'(각 58.6%, 64.3%, 58.3%)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학교설립별로 볼 때,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모두가 촌지의 대가로 '자녀가 관심을 받는다'(각 61.4%, 48.1%)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표 9> 촌지의 대가에 대한 인식

구분	보기문항(명, %)					계	x ²
	①	②	③	④	⑤		
교사의 성별	남	12(8.3)	6(4.2)	81(56.3)	24(16.7)	21(14.6)	4.50
	여	24(6.1)	27(6.8)	240(60.6)	66(16.7)	39(9.8)	
교사의 연령 별	20대	3(10.0)	0	21(70.0)	6(20.0)	0	39.30***
	30대	9(13.6)	3(4.5)	27(40.9)	12(18.2)	15(22.7)	
	40대	18(6.0)	15(5.0)	180(60.0)	60(20.0)	27(9.0)	
	50대 이상	6(4.3)	15(10.9)	87(63.0)	12(8.7)	18(13.0)	
학교 급별	초등학교	30(7.8)	30(7.8)	255(66)	57(14.8)	42(10.9)	24.85**
	중학교	3(3.6)	3(3.6)	54(64.3)	21(25.0)	3(3.6)	
	고등학교	3(4.2)	0	42(58.3)	12(16.7)	15(20.8)	
학교 설립 별	국공립	27(5.9)	33(7.2)	292(61.4)	75(16.3)	42(9.2)	21.47***
	사립	9(11.1)	0	39(48.1)	15(18.5)	18(22.2)	

** p<.01, *** p<.001

비고: ① 칭찬을 받는다, ② 상장을 탄다, ③ 관심을 받는다, ④ 자신감을 얻는다, 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7. 촌지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촌지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촌지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구분	보기문항(명, %)						계	x ²	
	①	②	③	④	⑤	⑥			
교사의 성별	남	33(22.4)	48(32.7)	15(10.2)	15(10.2)	30(20.4)	6(4.1)	147(100)	9.59
	여	15(25.1)	99(24.6)	57(14.2)	63(16.4)	63(16.4)	9(2.2)		
교사의 연령 별	20대	9(30.0)	12(40.0)	0	0	9(30.0)	0	30(100)	45.77***
	30대	18(26.1)	12(17.4)	15(21.7)	9(13.0)	12(17.4)	3(4.3)	69(100)	
	40대	7(24.5)	8(28.4)	3(10.8)	6(20.6)	4(13.7)	6(20)	36(100)	
	50대 이상	30(21.7)	36(26.1)	24(17.4)	9(6.5)	33(23.9)	6(4.3)	138(100)	
학교 급별	초등학교	96(24.8)	90(23.3)	48(12.4)	57(14.7)	87(22.5)	9(2.3)	387(100)	46.66***
	중학교	27(31.0)	39(44.8)	6(6.9)	9(10.3)	3(3.4)	3(3.4)	87(100)	
	고등학교	15(20.0)	18(24.0)	18(24.0)	15(20.0)	6(8.0)	3(4.0)	75(100)	
학교 설립 별	국공립	126(27.1)	126(27.1)	57(12.3)	72(15.5)	81(17.4)	3(6)	465(100)	56.01***
	사립	12(14.3)	21(25.0)	15(17.9)	9(10.7)	15(17.9)	12(14.3)	84(100)	

*** p<.001

비고: ① 강력한 단속과 처벌, ② 학부모들의 각성, ③ 교사의 각성, ④ 어떤 방안도 효과적이지 못함, ⑤ 학부모와 교사의 각성, ⑥ 기타

학부모들은 초중등 교원들의 연령별, 학교급별, 학교설립별에 따라 촌지의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령별로 볼 때, 2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촌지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부모들의 각성'(각 40.0%, 28.4%, 26.1%)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30대의 교사를 자녀의 담임으로 했던 학부모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26.1%)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둘째, 학교급별로 볼 때,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촌지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24.8%)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학부모들의 각

성'(각 31.0%, 24.0%)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셋째, 학교설립별로 볼 때,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모두가 촌지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학부모들의 각성'(각 27.1%, 25.0%)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촌지의 개념적 범위에 있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모두 '현금이나 상품권까지'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상품권을 전달하더라도, 교사는 그것을 진심어린 감사로 수용하면 안되고 학부모들은 촌지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거절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촌지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촌지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인식하고,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촌지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들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에게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의 급식 및 청소 도우미 참여의 부작용(김달효, 2005)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교사들 및 학부모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학교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행사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사와 행정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촌지전달의 경험에 있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모두가 '촌지를 준 경험이 없다'(각 52.7%, 93.1%, 72.0%)에 높은 반응을 보여, 촌지문제가 특히 중학교에서는 매우 양호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좀 더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촌지문제는 비록 그 문제에 해당하는 교사의 수가 극소수라 할지라도 사회적 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에 발생하는 촌지문제는 부끄럽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촌지문제에 관한 사안은 윤리와 관련되고, 윤리(ethics)란 일반적으로 '인간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기준에 의해 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의 체계화 및 준거를 의미(정진환, 2003)하기 때문에 반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특히 현실의 다양성과 역동성 속에서 ' 좋음'(good)과 '옳음'(right)을 구분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만약 좋음과 옳음이 병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좋음보다는 옳음을 선택하는 용기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윤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사의 윤리 사고는 윤리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원칙주의적 윤리 사고이다. 학부모로부터 받는 촌지는 그것이 진심어린 성의인지 아니면 대가성 또는 피해의식의 산물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진심어린 성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부모로부터는 어떠한 행태의 촌지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 사고가 필요하다. '스승의 날이 현직교사의 날' 또는 '가르치는 사람(교사)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등의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되지 않도록, 교사가 먼저 윤리에 대해 반성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김달효, 2006).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촌지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해 조사한 다음의 의견에서도 잘 알 수 있다.2)

2)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택형 질문지에 대한 선택적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촌지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선택형 반응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의식이 부족한 학부모가 촌지를 주더라도 현명한 교사가 받지 않으면 학부모들도 촌지를 주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께서 촌지를 받으시면 언니들이 학교에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함을 가집니다. 특히 촌지를 주지 않아 우리 아이를 미워하실까 걱정이 됩니다(학부모 4).

-학부모의 각성은 아이를 연두 해 두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의 가장 큰 부분은 교사의 직간접적인 요구에 의해 무너집니다. “들려주는 교사”에게는 또다시 주지 않습니다. 아이로 인해 교사 앞에서 학부모는 어느 부분으로도 약자입니다(학부모 5).

-당당하게 요구하는 선생님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촌지를 주지 않는 학생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선생님도 처벌해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의로운 새로운 선생님을 많이 인용해야 한다(학부모 6).

-학교의 학부모, 입원 등의 모임이나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등을 없애야 하고 학교 소풍이나 축제도 청소 등, 학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행사로 이루어 져야 하겠다고 학교에 특별한일, 지극히 개인적인 상담 외에는 학교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학부모 7).

-학교 자체적으로 촌지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고 공식화시켜서 학부모들에게 인식시키고 공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학부모 8). 양산의 어떤 초등학교에선 스승의 날에는 담긴선생님의 추신 메모(촌지를 일체 사양한다는)를 학부모에게 계획표에 추가하여 보냈다고 한다. 학부모에게 계획표에 추가하여 공식적인 선생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부모들의 마음이 한결 편안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한 학부모는 촌지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는데, 이를 통해 학교촌지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의 행정적인 대처도 좀 더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청 인터넷 사용 시 학생의 이윤, 학년 반이 모두 기재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교육청에 촌지 받는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익명으로 처리된다면 많은 불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학부모 9).

그리고 촌지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좀 더 넓게 고려해본다면,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만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를 받지 말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에게 자연스러운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사들이 담당 교수들에게 관행의 명목으로 스승의 날,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 그리고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제 공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촌지문제에서도 자유롭고 다른 부분에서도 모범이 되는 훌륭한 교사들을 찾고 널리 알리는 노력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함으로써 학교 내부에서도 변화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에 있어서 부산지역의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졌다. 연구의 성격상 표집의 지역적인 제한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의 연구결과가 나름의 의의와 시사점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광역시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좀 더 폭넓은 표집을 통해 지역 간의 비교를 다루는 다양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연구수행에 있어 초중등학교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고,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 중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는 한계를 가졌다.

연구의 성격이 부정적인 측면을 들추어내는 것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하다는 특성상 많은 학부모 및 특히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조사(특히 설문조사)는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연구방법상의 어려움을 좀 더 극복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 촌지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교원들을 포함하거나 문제점을 과장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의 촌지문제가 비록 소수의 교사에게 한정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촌지문제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우리사회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한 반성과 실천의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강선정(2005).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안정도에 관한 조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고재원(200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경향 분석: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고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달효(2005).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급식 및 청소 문화, 아시아교육연구, 6(1), 83~103.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대용(2000). 학교교육의 황폐화와 언론의 책임, 현상과 인식, 24(1), 109~140.
 대구지방법원 판례 1999.11.10. 99고합504
 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8). 초·중등학교 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서울: 감사원.
 손희권(2007). 학교촌지 수수의 법적 문제: 관련 법안의 헌법적합성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5(1), 165~183.
 여인순(1998). 초등학교 교사들이 경험하는 촌지 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이명준(1999). 한국교육의 부조리 현상에 대한 윤리적 분석, 한국부패학회보, 3(1), 91~108.
 이정훈(2004). 학교갈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인식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2), 1~21.
 정진환(2003). 교사의 교직 윤리, 이종재 외(편).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최성욱(1995). 학부모 촌지, 한국논단, 74(1), 130~134.

-
- 논문접수일 : 2009년 03월 25일
 - 논문심사일 : 1차 - 2009년 04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09년 06월 04일